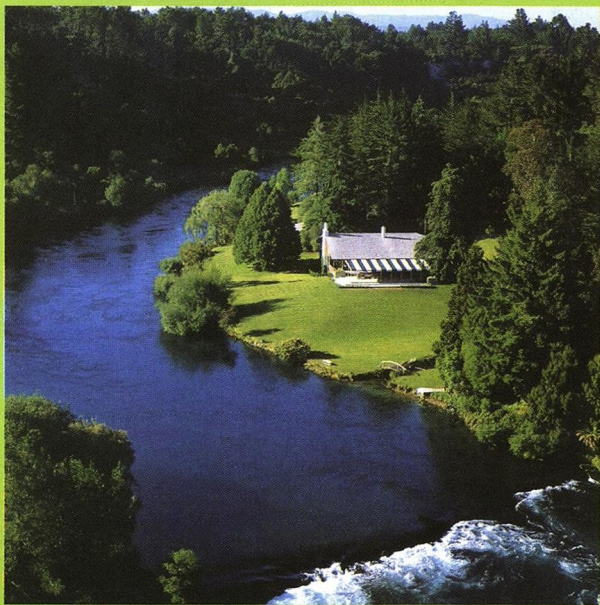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a Parent Find Peace of Mind?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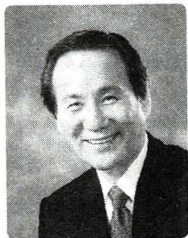
How Can a Parent Find Peace of Mind?

한국 오늘의 양식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부모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7
미래로부터 미리 들어보는 음성	9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 좋은 결과를 약속합니까? ...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17
양육의 제한된 보장을 인정함 / 18	
올바른 게임을 배웁시다 / 20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서 / 23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배우는 것들 / 26	
계약 맺기 / 30	
우리의 자녀를 울리는 것들 / 33	
농부처럼 / 36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 39	
포도 열매가 자라듯이 / 42	
자녀 교육의 기회 / 45	
자기 자신을 죽이기 / 48	
빈 등지를 준비하며 / 50	
조금 늦더라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 53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57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 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아마도 인생의 경험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자식들이 잘 자란다면. 부모의 역할은 또 최대의 도전입니다. 자식들이 잘못 성장하면 일생의 불행입니다. 기회임과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부모는 한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식을 갖고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한번뿐이고 그 영향은 일생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읽어 보시면 무지에서 자녀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 경험과 전문가들의 연구의 결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였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배우고 깨달아서 남은 기간이라도 평화를 누리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출생에서부터 자식들이 다 집을 나가더

라도 부모로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모의 적절한 역할을 배워 가는 부모는 점점 더 나은 부모가 될 것이고 단지 자신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부모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처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모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배우면 됩니다. 이번 발행하는 이 평화를 누리는 부모에 대한 책자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배우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현실적인 예를 실감나게 들어가며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자를 내기 위해 수고해주신 「한국 오늘의 양식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자가 많은 가정에 배포되어 조금이라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2000년 9월
김 상 복 목사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하철 광고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 만큼 오래 산 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한 유산을 남겨 준 다음에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혹은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난다고 믿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녀 문제로 늘 걱정하는 부모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1

부모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중인 경우에도 헤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

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래에 자녀를 갖게 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특별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 성장이 아니라 성숙함의 문제입니다. 성숙하며 훌륭한 성품을 지니도록 해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긴요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갖게 될 자녀”란 말은 또 다른 뜻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우리는 부모로서보다 어린 아이 같은 감정에 자주 젖어들게 됩니다. 부모가 육체적으로 성숙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확실성, 자기 회의, 어리석음과 같은 문제들로 얼마나 고심하는가를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는 스승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자녀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훗날 자녀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부모로서 얼마나 궁금해 하는지 알까요?

2

미래로부터 미리 들어보는 음성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부모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 부모님은 나와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은 안 계셨습니다.
- 부모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 언제나 내게 소리질렀습니다.

-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될 일을 했을 때만 나를 사랑했습니다.
- 결코 나에게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 항상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 내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 나를 어루만지거나 안아 준 적이 없습니다.
- 부모님은 언제나 다투거나 서로 헐뜯기만 했습니다.
-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 내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 부모님은 항상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실수를 하고서도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습니다.
- 나는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 나를 이용했습니다.
-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완고하고 비합리적이었습니다.
-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
- 부모님도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 화가 나면 나를 때렸습니다.
- 부모님을 필요로 할 때 나를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이렇게 말할까요?

- 부모님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 또한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진 않았습니
- 내가 필요로 할 때면 부모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 부모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과는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내가 나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게끔 해주셨습니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셨습니다.
-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 항상 내 뜻대로만 하게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 내게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내게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인내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 내게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 우리 부모님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나를 위해 항상 최선의 것들을 찾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내 친구들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

다.

-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 내가 실수로부터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 언제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 좋은 결과를 약속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잠언 22:6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하면 자녀를 각자의 특성에 맞게, 즉 각각의 성장 혹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녀의 기질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가르친다

면(입문시키다, 붙여넣다, 신성하게 하다, 바치다는 뜻으로 해석), 그 자녀가 자라서도(턱에 수염이 난다, 또는 성숙해 진다는 뜻) 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절대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감수성 예민한 자녀들에게 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표현한 일반적인 지체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잠언은 자녀들 각각의 필요에 알맞은 방법으로 첫 교육을 시작하면 이 첫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이 그 자녀의 평생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자녀는 부모가 그에게 끼친 영향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부모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부모의 가르침을 상기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한 성숙한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자녀들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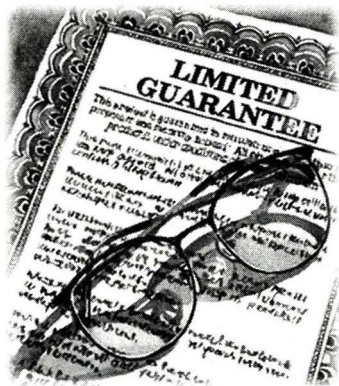
4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예측 가능한 확실한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증이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나 올바르게 자라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기회와 특권과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양육의 제한된 보장을 인정함



훌륭한 양육이 훌륭한 자녀를 만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부모를 갖는 커다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완벽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었으나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악의 길로 갔고 살인하는 자를 낳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 민족인 이스라엘도 구제할 길 없는 반역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구상의 곳곳

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좋은 부모도 그렇지 못한 자녀를 가질 수 있고 그와 반대의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에스겔 18:1-28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미리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결정론에 대해 상세하고도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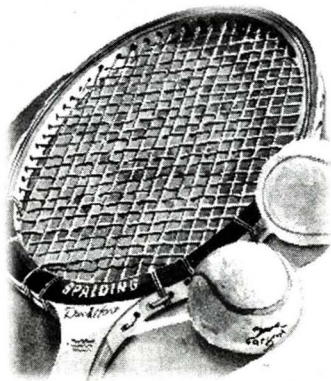
이러한 '예외에 대한 걱정'이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나쁘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딘가 부모의 부주의한 구석이 반드시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덕목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이 아이는 자신의 뿌리들을 극복하고 일어나 다르게 살아 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으리라 생각합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잠언 30:11)

그 자녀들의 불행을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부모에게라도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신이

바라던 만큼의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된다면 이는 더욱 슬픈 일입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살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바르게 자라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죄의식을 갖게 된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올바르게 살면 자녀들은 단지 좋은 기반을 갖추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게임을 배웁시다



테니스 경기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품위있게 정정당당히 이기고 지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하는 경기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승리와 상금만을 위해 경기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경기

도중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언행, 심판 폭행, 비겁한

변명 등으로 스포츠 정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몇몇 젊은 프로 선수들의 좋지 않은 유산입니다.

부모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면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 자녀 양육 방법, 자녀를 대하는 요령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아이들이 나를 진저리치게 하고 미칠 지경으로 만듭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죠. 소리치고 고향을 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고약한 성미가 다 드러나게 만든다니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요. 이 버릇없는 녀석들한테는 소리지르고 때리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라고 변명을 함으로써 부모의 위치는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부모가 서로에게 비난을 떠넘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난했고 하와는 뱀을 비난했습니다. 사탄인 뱀은 물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고 하와 또한 그녀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뱀도 형벌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를 키운 부모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실일 수는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선택한 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흐리려는 말들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아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에스겔 18:2)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습으로 얻어졌거나 생물학적으로 유전된 형질을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애굽기 20:5)

그러나 위의 성구는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함을 뜻합니다. 무의식중에 부모를 답습하거나, 의식적으로 따라하려 하든지, 혹은 일부러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여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이라는 게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신경과민을 앓던 어머니가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유치하게 행동하거나, 화를 내며 싸우기를 일삼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창시절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학창 시절을 다 끝냈다고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앞에는 우리를 찢찢매매게 만드는 10킬로그램 짜리의 걸음마를 하는 고집센 아

이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는 갑자기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윽고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일이 살면서 축적해 온 온갖 지식들을 신선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녀의 마음 속에 그저 서서히 쏟아부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좀 더 많은 대답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어린 시절은 백지 상태와 같다는 관점을 달리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지혜라는 분필을 집어 들고 쓰려고 하면 칠판은 갑자기 기름기를 머금고 미끌 미끌해져서, 멋지게 쓰면서 가르치려던 우리의 열정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훈계에 대한 거부 반응은 자녀들이 있는 한 항상 계속될 것입니다.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의 가치는 성인이 되어 아이를 낳는 것에 있지 않고, 아이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피터 드 브리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던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의 나이였을 때 마음에 담고 싶어했던 모든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기대와 꿈과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단점을 그대로 닮아가는 아이들을 그대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 H. W. 비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닮고자 노력하는 그의 어린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에 귀를 막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실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이사야 1:2).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장 선한 면과 더불어 우리의 치부도 또한 모두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한 것이라도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경쇠약, 근심 그리고 분노 등이 두통이나

감기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소리치거나 고함지르려는 충동 혹은 부모의 권위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싶은 충동은 무시하면 안 될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해 아직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우리들을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통제와 권능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깨닫게 될 때 우리들 부모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면 서 배우는 것들

동물과 비교당한다는 불쾌한 느낌을 가지기에 앞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개를 가르쳐서 가만히 앉아 있게 하거나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하기

까지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둘들 말은 신문지로 매를 때리고 소리쳐 가며 무리하리만큼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까? 신문지 채찍 몇 대로 개가 소파에 못 오게 쫓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두 발로 일어서게 하거나 옆으로 구르게 하는 일, 슬리퍼를 물어오게 하는 것들은 조련사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합당한 대접이나 포옹 등으로 따스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규칙도 정하고, 벌을 세운다고 위협도 하고, “다시 말하지만, 난 네 아빠고 그것이 이유다!”라고 엄포를 놓아 가며 가장의 권위를 강조해 보지만 그 효과는 잠깐 동안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의 이러한 온갖 위협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반항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할지 모릅니다.

단순히 규칙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강요한다고 해서 바르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중요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기를 원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기쁨을 얻고자 하며 또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진정으로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을 격려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손도 잡아 주고 안아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 속에 그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반항을 낳습니다. 법도가 없는 사랑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법도가 함께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 격려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저 사랑만 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율법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와 소원들을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보다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잠언의 지혜

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언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행사치 않으시는 경우를 거듭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위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적절히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한다면 자녀를 기르면서 겪을 수 있는 좌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즐거움, 소중히 여기는 것, 자유,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억누르는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에베소서 6:4) 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들 부모의 마음에도 평화를 잃게 합니다.

계약 맺기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강요하는 것이 말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는 있

어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영적 힘입니다. 겉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아이들도 자신의 내면에서는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에서 부모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무슨 일이 있게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따르지

않을 때 생길 일들에 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며,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핵심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것은 그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모든 일을 대신 결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뛰어들어 보호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치 않으면 어떠한 것이라고도 말해 주십시오. 그 다음 그들 스스로 결과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외출금지를 당하거나, TV를 못 보게 되거나,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한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거나, 온 가족이 함께 운동 경기를 보러 갈 때 제외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 때문이지 부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고함지르거나 잔소리와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기쁨이나 고통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일은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고함지르고 위협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방 안에 널려 있는 옷들을 정돈하라고 잔소리하거나 불평을 안 해도 되고, 낮은 목소리라도 우리의 요구 사항을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대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살지만 이것들은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올리는 것들



우리는 아동학대가 만연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못 참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아이들에게 심한 육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구타의 위험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어린이는 성

장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결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잘못된 버릇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위의 사실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반대 면은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

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언 13:24)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는 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잠언 19:18)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언 22: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29:15)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잠언 29:17)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브리서 12:11)

이 구절들은 부모들에게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꾸지람을 듣고 울며 불만에 찬 모습을 보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기적절한 사랑의 징계는 아이들의 장래와 부모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 자녀들은 잠언에 나오는 종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기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잠언 29:19)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 그것이 우리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 합시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울리는 부모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에베소서 6:4)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듣지 않도록 부모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게 공평치 않아요.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만 하고 한 번도 나를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면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엄마 아빠는 잘못을 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도대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이 변하며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지요. 엄마 아빠는 언제 화를 내며 폭발할지 알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두려워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로부터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지경이에요. 나를 울게 만드는 엄마 아빠가 정말 싫어요.”

농부처럼



자녀를 키우는 일은 요리보다는 농사에 가깝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 두 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책에 적힌 대로 잘 따라만 하면 그 결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리 방법이 아이들의 양육에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올바른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고기나 빵과 같은 요리 재료의 원천인 농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문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새콤달콤하기보다는 1940년대 농사짓는 일과 같습니다. 즉, 밭을 갈고, 땅을 파고, 고르고, 심는 일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고 밭을 갈며 물을 준 다음 수확 때까지 하늘에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해에는 풍년이 들지만 병충해나 장마, 가뭄과 폭염 또는 냉해 등으로 형편없는 수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농사일이 운에 맡기는 게임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사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뱅이나 바람둥이에게 농사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그 해에는 배고픈 가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 것인지 또 어떤 동물은 어떤 식으로 기르는 것인지를 잘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닭을 칠면조 기르듯이 하거나 옥수수를 알팔파 재배하듯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훌륭한 농부는 단번에 확실하게 수확할 수 있는 묘책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농부는 겸손합니다. 수익이 좋은 작물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수익을 미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만 때에 맞추어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풍작을 거두게 된다면 이는 농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올바르게 한 때문이며, 또한 환경과 날씨가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첫번째 편지에서 이 농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블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린도전서 3:5,6,8, 4:12,14,15,16)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과는 다른, 영적인 양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매우 비슷합니다. 양쪽 모두 바른 행동과 많은 노력을 들인 다음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베푼 사랑의 양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자녀의 빠른 성장을 강요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긴 과정이 바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를 서두르면 마음의 평안이나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는 자신의 친 아들이 아닌 한 아이를 길렀습니다(사무엘상 1:24-2:21). 여러 해 동안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우리 자

녀들과의 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양육을 잠시 동안 맡기어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제초기를 오랫동안 빌려 쓴 후 다 낡은 뒤에 주인에게 되돌려 줄 때에 드는 편치 못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매우 흥가분한 기분이 듭니다. 그것

은 우리 자녀들의 정당한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엘리처럼 제사장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5:1-4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도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연민의 정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제사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히브리서 5:2,3)

이 글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의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낯은 생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15)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베드로전서 2:5,9).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만이 마
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는 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보다 더 훌륭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들의 나이보다 더 지혜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항상 현명하고 항상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있는 그 곳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었고 앞을 내다 볼 줄 몰랐으며 생각이 얽였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아이들의 마땅한 소유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해심과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열매가 짜라듯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가지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한 자녀 양육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자라는 훌륭한 성품에서 나오는 결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품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즉, 훌륭한 성품은 우리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힘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올바른 자녀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라디아서 5:22-25)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훌륭한 특성들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우리들의 경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성령만이 갖고 계신 특성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옳다면 우리의 그릇된 감정이나 자녀와의 일그러진 과거의 관계는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훌륭한 자질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3-5)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품의 영적인 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영적 자원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음같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근거하여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요한복음15:1-14)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자라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사랑 : 단순한 노력과 수고

훌륭한 유머감각 : 염세주의

영혼의 평온 : 걱정

인내하는 자세 : 화를 잘 냄

친절함 : 야비함

선한 동기와 의도 : 이기심

약속을 지킴 : 약속을 어김

온유 : 무자비함

자기절제 : 중독(습관)적 행동

자녀 교육의 기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손들을 위하여 돌더미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그 곳에 돌더미가 쌓여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부모들은 돌기둥이 세워진 바로 그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

를 놀랍게 채워 주신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칠 순간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 4:21,22)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교육을 지루하게 하지 않았습니

다. “아빠 엄마,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죠? 항상 각자의 식기를 각자가 식탁에 정돈해 놓아야 하나요?” 하고 자녀들이 갖가지 질문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답해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신명기 6:6-9, 20-25의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위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의 힘을 깨달았습니다(잠언 15:23, 25:11). 그는 자녀들이 마음문을 열고 인생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유태인들은 부모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면서 스펀 교육이나 수수께끼 혹은 실생활의 예들을 통해 또는 연극이나 그림을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봄으로써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맞는 실질적인 교육들은 강압적이거나 의식적이며 학교 수업과도 같은 가정 예배와는 다릅니다. 후자는 바람직한 영적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말이 적절한 순간에 전해지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인 예배는 단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데 못했다는 죄의식을 조금 줄여 주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가르칠 기회를 미리 계획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면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오후에 자녀와 함께 낚시를 하면서, 숲속을 산책하면서, 교외로 드라이브하는 중에 나누는 인생에 대한 가벼운 대화들, 식사중의 자연스러운 토론, 혹은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나 기도는 자녀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고(신명기 6:6-9) 또한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보내는 창조적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과 식사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이 잘 되고 있고 바라는 대로 되고 있다면 그대로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강제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자녀들은 성경읽기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까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



수천 번 자신을 죽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행동 때문에 당혹스러워서, 때로는 심한 낙심과 피곤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해가 될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신의 생각을 죽이며 사는 이유는 그래야만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쉽다고 말하는 부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엄마가 되면 자신의 사회 생활, 직장일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갓난 아이와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기 인생의 몇 년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 출산 전에 누려왔던 부부만의 자유도 포기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결정권을 뒤로 접고 어린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필

요한 공간을 내어 주어야 하는 힘든 일이 기다립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져야 할 책임감을 느끼도록 통제는 점차 줄이고 보다 많은 자율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자녀들을 구해주겠다고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기를 자제하는 일, 자녀들이 완전히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와 규칙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게 만드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깨닫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접 뛰어들지 않고 자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이 자랄 때까지 참는 것은 마치 차갑고 냉엄한 세상 속으로 자녀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 보기만 하는 것 같아 매우 힘듭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27)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는 더욱 하기 어렵습니다. 나

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과 사랑으로 당신께 인도되도록 당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고 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고린도후서 4:1-12)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양육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빈 둥지를 준비하며

빈 둥지 증후군은 중년의 위기 정도와 비례하여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의 삶은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잘 마무리한 결혼 생

활에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을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들이 갑자기 텅 빈 집안을 서성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만스러우며 짜증도 나게 됩니다. 걱정과 분노와 절망이 안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부모 없이도 잘 살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클라크

빈 등지 증후군이 부모들 자신과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직 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자녀들을 위한 성공과 희망의 징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영원히 자녀로만 있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려 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부터 부모는 이 아이가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임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숙함이 성숙하지 못한 것보다 좋고 독립적인 것이 의존적인 것보다 좋으며 출발하는 날이 도착하는 날보다 더 좋습니다.

둥지를 떠나 보내는 일상적 아픔을 겪고 난 후에도 부모들이 여전히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집을 대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통제와 억압적인 행동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자녀가 잘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구에 빠져서 지나친 간섭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떠나 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온통 자녀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뜻하며 이는 우리가 평안과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영원히 줄 수 있는 단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날개입니다.

— 하딩 카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약과 구약시대 모두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녀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양육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기적을 깨끗

이 거두어 가지고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자 역경 속에 빠져 있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서로의 배우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독립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전혀 안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편이 전혀 말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눈을 감는 것보다 낫습니다. 늦게나마 자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자녀들이 일생 동안 '우리 부모는 과연 진

정으로 나를 염려해 주셨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라도 몇 마디 격려의 말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보는 것은 가장 놀라운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살면서 저질렀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중독, 알코올 중독증 같은, 또 음란하거나 학대를 하며 이기적인 부모의 그릇된 자녀 양육의 결과는 칠판에 잘못 쓴 글자를 지우듯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날 그날을 뜻있게 살도록 가르치며,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가능하면 상도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의 예수님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의 이러한 자녀에 대한 마음을 보여 주기도 전에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자녀의 삶과 기억을 소중하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거울삼아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실수를 거울삼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그는 수많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에는

화도 잘 내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사도행전 8:1-3). 그러한 그의 행동들은 그를 무겁게 짓누르며 어두운 기억들로 따라다녔습니다(디모데전서 1:15).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실수를 딛고 그의 사랑과 지혜와 본보기와 기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깨닫고 난 다음 심경의 변화를 갖게 된 다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본을 보이는 행실과 권면과 징계 그리고 용기를 주는 따듯하고도 단호한 말들로 유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의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든든한 격려와 도전으로 양육하는 법을 배워 베풀었던 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2:7-12). 그의 '양자' 된 사람들이라면 '늑더라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혼하였거나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또는 육체적, 언어적, 혹은 성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 밑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가 혼란스러워 하면서까지 그들의 자녀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보여 주었던 만큼 자신들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우

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족한 점을 우리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도록 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심으시고 키우시며 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생명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에베소서 1:3-12, 요한1서 5:1).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안전함과 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해 주시는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의지하여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지속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자녀’로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훌륭한 부모가 되는 비밀스러운 품성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1) 780-9565~7

F A X : (031)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816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심으로써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예금주 :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고정식
총무/최부웅·이덕진 상담/김영자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기획/정호균 발송/이의호 홍보/차일환 회계/이향순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인 쇄 / 2000. 9. 15.

발 행 / 2000. 9. 2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1)780-9565~7

-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 ③ **오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 ④ **복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 ⑤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 ⑥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 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 ⑦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 ⑧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 ⑨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 ⑩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 ⑪ **다시 찾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
- ⑬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 ⑭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평생 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신앙성장 시리즈」구독신청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및 헌금자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받는사람	성명	전화															
	주소	(우편번호:)															
	출석교회	직분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신청부수																	
		헌금입금은행: ()은행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십시오.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할렐루야선교원>**

외환 : 026-13-33750-7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 463-816

전화(031)780-9565 ~ 7 FAX (031)780-9569

신앙 성장 시리즈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잘 기르길 원합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자녀들을 기르면서 겪게 되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 주시는 지혜로운 해결 방법들을 찾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부모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 미래로부터 미리 들어보는 음성
- 성경은 좋은 부모에게 좋은 결과를 약속합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How Can a Parent Find Peace of Mind?"를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